

8 기획-영어교육 현황



대학 차원에서 '더 나은 영어교육'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 (사진=대학주보 DB)

영어교육 내실 부족... ‘부분영어’ 선호 현상도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우리학교는 ‘영어강의 의무이수제’를 지난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영어교육의 내실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신문은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영어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본다.

영어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글로벌 역량 강화’
현행 제도에 우려의 목소리

대학가에서 국제화 바람이 불던 2008년, 우리학교도 추세를 따라 ‘영어강의 의무이수제’를 도입했다. 영어강의 의무이수제는 졸업 이전까지 ‘영어’ 또는 ‘부분영어’로 지정된 전공 강의를 3개 이상 이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학점을 모두 채워도 졸업유예자로 처리된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영어강의 의무이수제는 ▲글로벌 역량 강화 ▲영어 능력 향상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개설

된 영어강의 비율은 16.9%다. 대학본부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영어’는 수업 진행과 교재 등이 100% 영어인 강의를, ‘부분영어’는 수업 진행 또는 교재 중 일부를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를 말한다. 다만 학생 대다수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소통 문제 ▲수업내용 이해도 측면 ▲과제와 시험 등을 이유로 ‘영어’보다 ‘부분영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

‘영어’로 지정된 전공 강의를 수강한 JIANG YIZHI(유학생, 관광학 2020) 씨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험공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허지수(미디어학 2020) 씨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공 강의였기에 통계학 관련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수업 중 모든 질문과 답변도 영어로 해야 했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손들고 물어보기 망설여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재만을 영어로 사용하는 ‘부분영어’의 경우, 글로벌 역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박준서(회계세무학 2020) 씨는 “외국인이 많은 ‘영어’를 피해 다들 ‘부분영어’를 수강한다”며 “교재 내용만 번역기

를 사용하면 한국어 수업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정다인(아동가족학 2020) 씨는 “에너지 소모가 적은 ‘부분영어’를 선호하지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학본부가 목표로 하는 바를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언어영역이 두루 갖춰질 수 있는 영어강의를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들이 듣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으나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학생은 대학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수빈(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 씨는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영어강의 수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오히려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송주형(경영학 2022) 씨 또한 “대학은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기에 실질적인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물리학과 A 교수는 “대학원에 진학해 물리학을 계속 공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취직하거나, 앞으로 연구를 통해 알려질 물리학의 많은 내용도 대부분 영어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어로 물리

학을 접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영어교육,
더 나은 방향성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 영어강의가 그저 졸업 요건에 포함되는 교과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면 대학 차원에서 ‘더 나은 영어교육’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학교의 영어교육이 ‘타 대학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20년, 연세대는 대대적인 영어교육 개편을 거친 바 있다. 필수과목이었던 영어 과목을 전면 선택과목으로 돌리고, 각 전공영역에 특화된 프레젠테이션, 글쓰기, 독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영어 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매우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어교육의 효용성과 실질적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도출된 결과다.

대학 영어교육의 근간이 되는 ‘대

학영어’ 과목은 학술 영어 이외에도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이다. 이는 이후에 있을 전공 영어수업의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 영어교육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현재 ‘대학영어’ 단일 교과목을 개설하고,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난이도만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대학영어’ 교과목을 ‘기초영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고급영어’로 나눠 운영한다. 특히 ‘고급영어’는 발표, 영화, 문학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세부 과목이 따로 개설돼 있어 관심사에 맞는 교과목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영어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이전에 ‘영어강의에 대한 심리적 장벽 허물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주형(경영학 2022) 씨는 “중앙대에서는 영어강의를 듣는 수강생 상위 50% 이내에 A 학점 이상을 부여하고, 그 이하부터 누계 90% 이내의 학생들에게는 B 학점 이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어강의 성적 평가 기준을 후하게 뒤서 진입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허씨는 “강의계획서에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강의인지 난이도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다.